

보도

‘장학금 대리수령’ 논란 불거져 총학, “장학금 지급 투명화 노력하겠다”

총학생회 장학금 대리 수령 논란
이진우 기자 urusa93@khu.ac.kr

학생회 임원들이 장학금을 대리수령하고, 일부에서 장학금 다시 학생회 운영비로 사용한 것이 논란이 되고 있다.

시작은 지난 9일 페이스북 ‘경희대학교 대나무숲’ 계정에 지난 학기 총학생회(총학) 소속 임원이 장학금을 대리수령했다는 내용을 담은 게시물이 올라오면서부터였다. 제보자는 ‘밝은사회장학’이 개인계좌로 현금 지급되는 점을 악용해, ‘휴학’과 ‘졸업유예(8학기 초과 재학)’ 등의 이유로 장학금을 받을 수 없는 임원들이 다른 학생의 이름으로 대리 수령한다고 주장했다.

이후 우리신문의 취재 결과, 이는 사실로 드러났다. 총학 박이랑(사학 2008) 전 회장은 이 같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대리수령한 것은 사실이지만 개인적인 일에는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공적인

업무에만 사용했다”며 “관행처럼 이어져왔지만 방법에 문제가 있음을 알고 있었으며 제도를 개선하고자 고민했다”고 말했다.

문제가 된 장학은 ‘밝은사회장학’이다. ‘밝은사회장학’은 공적이 뚜렷하고 학교 발전에 기여도가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급되는 장학금이다.

학생지원과, “현실과 제도의 괴리 탓” 활동지원금 현실수준 상향까지 논의

이는 주로 학생회 임원이나 동아리 연합회 등 학생자치기구에서 활동하는 임원들에게 지급하는 장학이다. 다른 장학과 달리 고지서 감면이 아니라 장학금이 본인의 계좌로 현금지급이 된다. 학생지원과 최창용 직원은 “선출직인 총학회장이나 부회장과는 달리, 집행부원은 학기 중에 정해지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고지서 감면방식은 어렵다”라고 말했다.

즉 자치기구에 지급되는 장학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장학금 수령조건은 ‘직전 학기 학점 평균 2.0 이상’, ‘휴학생 금지’, ‘졸업유예자(8학기 초과 재학) 금지’, ‘등필복학자(등록금을 납부하고 휴학한 자) 금지’ 등으로 다른 장학과 동일하다. 학생회 임원이 ‘휴학생’이나 ‘초과학기 재학자’ 신분으로 활동을 이어가는 경우가 많은 상황을 감안할 때, 결국 제도와 현실의 괴리가 대리수령과 같은 문제를 야기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 직원은 “예전부터 졸업유예나 휴학상태로 학생회 활동을 하는 학생이 많아 장학금 수령 조건을 맞추기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라며 “현실과 제도의 괴리가 만들어낸 관행이며 제도적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현재 ‘밝은사회장학’뿐만 아니라, 활동지원금을 현실수준으로 상향하는 등의 방안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희 MOOC 2.0’ 5월 오픈, 온라인 설명회와 포럼도 개최

이진우 기자 urusa93@khu.ac.kr

우리학교와 경희사이버대학교는 무크(MOOC: Massive Open Online Course, 온라인대중강의)의 5월 출시를 앞두고 있다.

우리학교와 경희사이버대는 지난 20일 ‘경희 MOOC 2.0’에 실을 콘텐츠인 ‘세계 시민교육’ 과정을 제작 중이라고 밝혔다. 이 과정은 아시아, 아프리카, 미국 등지의 해외거주 한국인을 위해 한국어로 제작되며, 한국어 버전은 5월~6월, 영어 버전은 올 하반기 공개를 목표로 한다.

프로젝트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우리학교와 경희사이버대는 온라인 설명회와 포럼을 개최한다. 온라인 설명회는 지난 21일 개최돼 내달 7일까지 2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다. 온라인 설명회를 통해 ‘왜 세계 시민교육일까’, ‘세계시민교육이란’, ‘무엇을 가르칠까’, ‘국내외 세계시민교육 프로그램’의 4가지 주제에서 동영상, 읽을 자료, 토론 등의 방법으로 논의가 이뤄진다. 인포 세션(Info Session)이라고 불리는 이 설명회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더불어 오는 30일에는 ‘세계시민교육 포럼’이 우리학교 서울캠퍼스 청운관에서 열린다. 이 포럼에서는 ‘세계시민교육(GCE



의 관점과 방향성’을 주제로 ‘세계시민교육과 초중등교육의 역할’, ‘세계시민교육과 정부의 역할’, ‘세계시민교육과 시민사회의 역할’에 대해 논의한다.

시설	접지저항측정결과	대책
청운관	1.3Ω	양호
호텔관광대학	426Ω	접지보강
국제교육원	85.1Ω	인하도선 불량, 접지보강
생활과학대학	1.6Ω	양호
중앙도서관	178.9Ω	피뢰침 불량, 인하도선 불량, 접지보강
본관	2.9Ω	양호
평화의전당	2.44Ω	양호
교수회관	318Ω	피뢰침 불량, 인하도선 불량, 접지보강
법과대학	9.3Ω	양호
제2법과대학	2.9Ω	양호
한의대학	3.3Ω	양호
이과대학(동관)	54Ω	피뢰침 불량, 접지보강
이과대학(서관)	피뢰 접지 없음	피뢰침, 접지신설
경영대학	9.36Ω	인하도선 연결 불량
정경대학	300Ω	피뢰침 불량, 접지보강
삼의원	3.79Ω	양호
학생회관	49.5Ω	접지보강
세화원	3.9Ω	양호
약학대학	0.86Ω	양호
의학도서관	5.9Ω	양호
의과대학	8Ω	양호
치과대학	7.1Ω	양호
미술대학	344Ω	인하도선 불량, 접지보강
미술대학(신관)	6.5Ω	양호
공관	35.1Ω	접지보강
네오르네상스관	557Ω	접지보강
세진원	1.9Ω	양호
행복기숙사	7.4Ω	양호
무용학부	1.5Ω	양호
조형물 탐	61.4Ω	접지보강

서울캠 피뢰설비 43.3% ‘문제’ 관리팀, “6월부터 보수하겠다”

피뢰침·접지 안전점검 결과
이승연 기자 leesy0317@khu.ac.kr

【서울】 ‘피뢰침·접지 안전점검’ 결과 30개 건물 중 13개 건물의 피뢰설비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접지저항의 기준 값은 10Ω(옴)이지만, 네오르네상스관의 경우 55배가 넘는 557Ω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안전점검은 지난해 6월 낙뢰로 인해 평화의 전당 상단 석조물이 파손되는 사고 이후 진행했다. 조사에서 가장 핵심은 접지저항을 낮춰 낙뢰를 유도해 다른 건물의 피해를 방지하는 것으로, 접지저항은 10Ω(옴)이하 값을 유지하고 있을 때 일반적으로 안전한 편이라고 여겨진다.

이번 조사 결과 문제가 드러난 13개 건

물의 피뢰설비는 접지·인하도선·피뢰침 등의 문제로 대부분의 접지저항이 비정상적으로 높은 것이 드러났다. 가장 높은 네오르네상스관에 이어서 호텔관광대학이 426Ω, 미술대학이 344Ω로 뒤를 이었다.

점검결과를 토대로 관리팀은 올해 6월부터 보수공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접지저항이 10Ω 이하여도 주변 환경에 따라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임야지역부터 실시할 계획이다. 관리팀 김태우 직원은 “건물이 오래된 편이고, 학교의 지반이 수분이 없는 ‘마사토’로 이뤄져있어 저항이 높게 측정되는 편이다”라며 “예산이 배정될 것으로 보이는 오는 6월부터 임야에 인접한 건물을 우선적으로 보수공사를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제캠퍼스의 경우, 상시점검을 통해 지난해 2개 건물의 피뢰침을 보수한 바 있다.

교내 한국인, 외국인 학생들의 다양한 소식을 세계 곳곳으로 전해드립니다. 유학생들의 생활 불편사항을 비롯한 학내 이슈들을 발로 뛰며 취재합니다. 또한, 교환학생과 해외자매대학들을 관련 소식을 전하며 경희대의 국제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매월 발간되는 잡지는 양 캠퍼스에 총 3000부 배포되며 140여개의 해외 자매대학으로도 발송됩니다. 외국인 유학생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영어신문사로 거듭나겠습니다.

Our mission is “to contribute to the internationalization of Kyung Hee University by providing space in which communication takes place among each other in English.” If you have any comments or suggestion for improving the magazine, please, contact us on unilife@khu.ac.kr

경희대학교 영어신문사 The University Life